

전훈캠프 49일 대장정 마무리 KIA 선동렬 감독



“올해가 계약 마지막 자존심 걸고 명예회복”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해왔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49일간의 대장정이었다.
KIA는 지난 1월15일 판(투수조)과 오키나와(야수조)에 캠프를 꾸리고 2014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월5일 투수조가 오키나와로 이동하면서 본격화된 캠프. KIA는 일본과 한국 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올 시즌의 밑그림을 그렸다.

마무리 캠프에서 '자기 반성'을 언급했던 그는 스프링캠프에서는 '절실함'을 말했다.
선 감독은 “이번 캠프에서 선수들이 단합되고 정신적인 면도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난해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선수들과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해 참담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에 먼저 다가서며 '소통의 야구'
경쟁 통한 야수진 백업 강화 큰 성과
“불안한 불펜 시범경기서 답 찾을 것”

겉으로는 평온한 캠프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느 해보다 치열한 시간이었다.
김민우·이대형 등 외부 영입 선수와 강한울·박준태·김지훈 등 무서운 신인들이 포지션 전쟁을 일으켰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벤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난 2년 선동렬 감독은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1위에서 8위까지 추락하며 지도자 명성에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올 시즌은 선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가을 수확에 따라서는 고향팀에서의 마지막 캠프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위기가 선 감독을 바꿨다. '소통의 부재'가 화두가 되면서 선 감독이 소통으로 선수들에게 다가갔다. 선수들에게 농담을 건네며 공을 잡는 감독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후회 없는 한 해를 위해 그라운드 전면에 나서 세세하게 전력을 살폈다.

선 감독이 짊어지는 캠프의 성과는 야수진의 백업 강화다. 지난해 부진을 털기 위해 이를 약문 2투수 안치홍과 공·수·주에서 능력을 발휘한 신인 강한울은 선 감독이 밝힌 스프링 캠프 야수 MVP다.
경쟁을 통해 내·외야 전력을 강화했지만 허약한 불펜은 여전히 고민이다. 그나마 불펜에서 성장세를 보인 투수 한승희와 박준태가 투수 MVP다.
선 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내외야 백업 선수층이 두터워진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불펜이 걱정이지만 하지만 시범경기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5일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6일 세안방에 첫발을 내딛는다. KIA는 6·7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한 뒤 시범경기(8일 오후 1시)를 위해 대구로 이동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선수단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 포토데이 행사에서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 '마지막 조율'

선수단 재집결...13일까지 목포서 훈련

광주 FC 남기일 감독대행은 “정말 많이 시켰다”고 웃었다. 전남에서 온 골키퍼 류원우도 “이런 훈련은 처음이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전지훈련을 끝내고 돌아온 광주 FC 선수들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재소집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훌쩍해진 모습들이었다. 남 감독대행의 예기처럼 독한 훈련이었다.
광주는 지난달 3일 일본 시즈오카에 캠프를 꾸리고 전력을 가다듬었다. 40년 만의 폭설을 만나기도 했고, 눈도 뜨기 어려운 정도의 비바람을 뚫고 경기를 했던 이들은 지난달 28일 귀국길에 올랐다.
짧은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4일 그들의 안방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골대가 아닌 카메라 앞에 섰다.
포토데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주인의 기다리고 있던 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구단 프런트까지 모두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사진도 찍었다.
사진 촬영 후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부정방지교육에 참여하는 등 귀국 후 첫 일정을 소화했다.

모처럼 여유있는 하루를 보냈지만 5일부터 이들은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맨다. 이번에는 목포로 가서 13일까지 전지훈련을 치르게 된다.
남 감독대행은 “일본에서 70~80% 가량 전력을 가다듬었다.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연습경기 결과가 아쉬기는 했지만 체력·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며 “주장 이완과 최성환, 이종민, 송한복 등 고참 선수들이 잘 이끌었고 후배들 믿고 따라와주면서 선수들의 유대관계가 잘 이뤄졌다. 그런 부분은 그라운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고 일본 캠프의 성과를 말했다.
지옥의 훈련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목포 전지훈련에서는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남 감독대행은 “세트 피스 등 세부적인 것을 준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00% 컨디션을 올리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다. 일본에서 훈련을 상당히 많이 지켰다. 개막(15일)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홈 경기 건강식품 경품 제공

광주 FC가 홈경기에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광주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4 K리그 챌린지 홈 전경기(18경기)에 비타민과 경육고, 공진단 등 건강기능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은 구단 후원사인 윤안한방병원, 청연의료재단, 비타민하우스에서

팬들을 위해 마련했다. 공진단과 경육고는 50만원 상당으로 경기당 2개씩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 마그네슘과 오메가3, 비타민 등 10종의 상품도 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 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이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